민주, 제주시갑 전략공천 확정… 후폭풍 예고

어제 13개 지역구 전략공천지역 지정… 17일 최종 의결
박희수 예비후보 반발·당 지지층 반대 등 내홍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제주시갑 지역구를 전략공천지역구로 확정하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예비후보로 일찌감치 등록해 지역구 활동을 펼쳐온 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가 강력 반발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전략공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5일 오후 전략공천 검토 대상 지역 지정여부를 논의한 끝에 제주시갑 등 13개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최고위를 열어 이같은 사항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제주시갑은 4선의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유력 검토돼 왔다. 이후 민주당은 강 의원이 지난 12일 의정보고회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일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전략공천을 확정했다. 전략공천은 예비후보 경쟁력, 전략공천 후보의 경쟁력, 지역 선거 구도 등을 두루 살펴 결정되는 만큼 민주당이 전략공천 후보자를 사실상 내정해 경쟁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차출설이 제기돼왔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비상근으로 공직사퇴 대상은 아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퇴시한인 16일에 사퇴하지 않더라도 당의 후보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출마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때나 가능한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선을 긋지는 않았다.

문제는 전략공천에 대한 후폭풍이다. 제주시갑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희수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자 이날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과 정의"를 언급하며 "제주시갑에 대한 전략지역 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지역정서와 주민의 결정 권한을 무시하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지정해 지역의 후보로 내세운다면, 지난 도지사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재현할 수 밖에 없으며 제주 국회의원 선거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식 팬카페인 '문팬'의 제주대표도 전략공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문팬의 김상균 제주대표는 이날 당의 발표 전 입장문을 통해 "전략공천이 현실화된다면 전락공천의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총선 '정책대결' 급가속 사진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조정실장 '발탁'… 여성공무원 '약진'

■ 해설/ 제주자치도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보직 인물난·고시출신 간부 자리배치 고민
여성 공무원은 5급 행정직 승진 절반 차지

600명 규모로 단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의 기획조정실장 발탁과 고시출신 간부공무원들의 자리배치가 가장 특징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 상반기 인사는 민선 7기 중반부에 이른 만큼 도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직무 역량과 직위 적합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 재배치가 특징이라고 밝혔지만 보직에 따른 인물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 발령이 불가피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부이사관급인 현대성 국장의 기조실장 발탁은 직급이 아닌 업무능력으로 선택했다는 점과 아울러 전임자의 중임 및 전보에 따른 협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도청 안팎에서 풀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인 고시출신들을 선뜻 국장 자리에 앉힐 수 없는 점도 고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현장 실무에서 보다 장기교육 및 파견 등으로 '경륜'을 쌓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5급 행정직 승진 18명중 9명(50%), 전체 승진자 31명 중 12명(39%)이 여성공무원이다. 또 주무팀장 3개 직위 내 부공모 임용을 통해 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주요 보직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성인력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제주도는 강조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주요보직에 배치하고 소극적·직무태만 직원에 대한 책임 인사 역시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인사고충을 제외한 단기 보직이동 최소화로 업무 연속성을 유지했으며, 격무·기피 현안부서에는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해 조직의 안정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격무부서·전문관 지정 등 인사 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과의 인사교류(파견)을 통해 정책수립능력 향상과 중앙과의 상호 연계성 확보를 꾀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인사교류(파견)는 총 23명(3급 1명, 4급 1명, 5급 13명, 6급 7명, 7급 1)이다. 서귀포시 부시장 자체 승진 등 행정시 조직 안정을 위해서도 변화를 추구했으며, 행정시 7급이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행정시 요구사항을 반영해 21명을 제주도로 전입했다고 설명했다.

송종식 총무과장은 "민생경제 활력화 및 도정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추진동력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인력 재배치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D-90 <정당·가나다 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아픈 제주 지켜낼 것"… 심상정 지원사격

제주시갑 고병수 예비후보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는 15일 "아픈 제주를 지켜내고,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시 노형동 천막캠프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병 들고 지쳐가는 제주도와 도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의사 가운을 벗고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의회 부활, 더 나아가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현시키겠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비롯해 제2공항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심상정 대표는 "제주에서 난개발 정치를 싹 다 갈아엎고 제주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고병수 후보"라고 호소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후원회 출범… 회장엔 김치홍 전 교감

제주시갑 양길현 예비후보

무소속 양길현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의 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후원회 회장은 김치홍 전 신성여고 교감이 맡았다.

양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소 존경하는 김치홍 선생님을 이번에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함께 손잡고 서울-제주KTX, 도일주 바다트램, 기본소득 시범도시, 4차 산업혁명 특구 등 20년간 다듬어 온 제주 미래비전을 하나씩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치홍 후원회장은 "양길현 예비후보의 친화력과 추진력에 감탄해 양 후보의 새 길에 도움이 되고자 적극 동참하게 됐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벗에 동참하고자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농민 최저생계 보장… 감귤육성법 제정"

제주시을 차주홍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차주홍 예비후보(사진)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귤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감귤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예비후보는 "농민들은 올해 감귤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다. 감귤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민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또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위한 감귤육성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제2공항 건설촉진 범도민연대 결의문

제주 제2공항의 건설은 기존 제주공항의 수송량이 포화상태로 앞으로 10년, 20년, 향후 100년의 미래와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제주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현재까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의료시설 행정시설을 제주도 전체로 균형 있게 나누어 제주시 에만 집중되는 병폐를 없애기 위한 전초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됨으로 동부권역의 경제발전과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밀도를 분산하고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교통,주차,쓰레기,교육,주거)를 서귀포시와 분산 운영 한다면 인간적인 "삶의질"도 향상 될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로 제주도의 "청년실업" 즉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의 의한 "교육정책의 향상", "읍면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노인복지"와 "의료혜택" "권역의료센터 및 전문병원의 건립" 등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뿐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제주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주 제2공항의 건설은 빠른 시간에 건설 되어야만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및 일부 자생단체, 정치인", 등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 행동들은 제주도 전체 도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입지선정 이후 4년 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여 지역적 경제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반대단체들의 반대 행동을 좌시 할 수 없어 이제라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제주도민들 중 반대하는 도민 보다 찬성하는 도민이 월등히 많고 제주 제2공항을 갈망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한곳에 모으고 행동하기 위하여 "제주 제2공항 건설촉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하게 되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은 제주도와 67만 제주도민, 국회의원, 도의원등 정치인들이 국가에 요청하였고, 국가기관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4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개인의 이익에 사로잡혀 대의명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적인 반대에 봉착 하였다. 도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1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지고도 아직도 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온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 제2공항 건설촉진 범도민 연대"**는 도내 및 도외 지역의 언론, 재외도민회, 찬성단체 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제주 제2공항건설 촉구를 강경하게 외칠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제주도의 경제발전 및 균형발전을 이루고 제주시에 몰려있는 인프라를 서귀포시 에도 균형있게 구성을 하여 제주시 에 몰려있는 인구적인 문제(상하수도, 주차, 쓰레기)등을 인구의 분산으로 해결하고 다른 읍,면 지역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공항이라는 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주도의 미래인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위해 제주도를 떠나지 않게!
대학을 가기 위해 제주도를 떠나지 않게! 병원을 가기위해 육지로 향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균형발전, 청년실업,
1차 산업만이 아닌 2차, 3차, 4차 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침묵 하지 말고, 정치인들의 정치 싸움에 말려들지 말며,
제주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어주십시오!

하나.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01월 1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촉진 범도민연대